

2013년 젊은이(청년·청소년) 예배포럼 자료집

# 젊은이(청년·청소년)를 위한 세례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3층 소예배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 2013년 젊은이(청년·청소년)예배 포럼 안내

## <초대의 글>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 성경공부, 소그룹 운동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세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는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짧은 의식으로 축소된 세례는 아쉽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세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세례의 가치를 재생산하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젊은이(청년·청소년)를 위한 세례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2013년 젊은이(청년·청소년) 예배포럼을 주최합니다. 이 포럼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과정으로 세례의 모든 과정을 제시하고, 단지 새롭게 세례를 받을 사람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포럼이 청년과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세례(세례교육, 세례, 예배, 공간, 세례 후 갱신의 과정 모두를 포함하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예배에서 세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례를 통하여 젊은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세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역자들을 초대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정현범 목사

- 일시: 2013년 9월 30일(월) 오전10시 30분~오후4시 50분
-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3층 소예배실
- 주제: 젊은이(청년/청소년)를 위한 세례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
- 강사: 나형석 교수, 박해정 교수, 김형래 목사, 박혜신 목사
- 대상: 목사, 전도사, 교육담당자
- 등록비: 3만원
- 주최 및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 일정표

시 간	강 의	비고
10:30-11:00	등록 및 접수	
11:00-11:30	“세례 찬송” 이천진 목사(궁정교회)	보컬: 김미현 해금: 천재상 피아노: 김서영 피리: 박영주
11:30-12:30	“세례의 이해와 세례교육의 활용” 김형래 박사(우두교회)	패널: 주학선 목사 Q&A
12:30-13:30	점심식사	
13:30-14:20	“새예배서의 세례예문 적용의 실제” 나형석 교수(협성대)	패널: 이천진 목사 Q&A
14:20-15:10	“세례의 새로운 적용으로써의 세례캠프 제시” 박혜신 목사(만나교회)	패널: 김동준 목사 Q&A
15:10-15:30	“세례 찬송”	독일교회 및 신작 세례찬송 소개
15:30-16:20	“세례 갱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 세례갱신 예배의 모형 제시” 박해정 교수(감신대)	패널: 이은경 박사 Q&A
16:20-16:50	전체 토의	진행: 전창희 박사 Q&A

- 문의 및 안내: 교육국 차세대교육정책부 부장 정현범 목사 399-4371  
서기 임기선 399-4367
- 등록안내:
  - 1) 등록비는 1인 3만원이며 교재와 점심 및 간식이 제공됩니다.
  - 2) 등록카드를 등록비(3만원)와 함께 등록처에 내주시고 교재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3)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선착순으로 50명만을 받습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4) 주차는 1시간만 무료이며 이후 시간은 개인 부담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세례의 이해와 세례교육의 활용 \_김형래 박사 p.1

◎ 새 예배서의 세례예문 적용의 실제 \_나형석 교수 p.11

◎ 세례의 새로운 적용으로써의 세례캠프 제시 \_박혜신 목사 p.18

◎ 세례갱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 :  
세례 재확증 예배를 소개함으로 \_박해정 교수 p.23

◎ 세례 찬송 악보 p.36

## 【세례의 이해와 세례교육의 활용】

김형래 박사 | 우두교회

### 1. 예배와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

2013년 감리교 젊은이(청년·청소년) 예배포럼의 주제가 “젊은이를 위한 세례의 이해와 교육적 적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필자는 세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웠던 한편, ‘예배포럼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이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증과 걱정도 생겼다. 왜냐하면, 혹자는 ‘예배포럼인데 왜 세례를 다루지? 세례는 주어진 예문에 따라서 예식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필자로 하여금 이러한 걱정을 하게 만든 몇 번의 경험이 있었다. 2011년과 2012년에 “예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감리교 정회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필자의 강의 주제가 “세례의 재발견”이었다. 그런데 3시간여 동안 세례에 집중하여 강의한 후 필자에게 돌아온 공통적인 반응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가 예배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예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에 왜 꼭 세례를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세례와 더불어 성례전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성찬은 ‘성찬예배’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서인지 성찬과 예배와의 관계에는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이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물음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그 다음번부터 강의 주제를 “세례공동체와 예배”라고 바꾸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추가하였다.

먼저, 세례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과 의 새로운 언약을 상징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써 낳은 지 8일된 남자아이에게만 행해졌던 할례(Circumcision)가 신약시대 이후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8요일’에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세례(Baptism)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례공동체’라는 자신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 즉 세례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장자끄 폰 알멘(J. J. Von Allmen)은 『구원의 축제』에서 예배 안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sup>1)</sup> 첫째, 예배는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부활주일 새벽에 거행

1) 장자끄 폰 알멘 지음, 박근원 옮김, 『구원의 축제』 (서울: 아침영성지도연구원, 2010).

되었는데,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세례를 통해서 교회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즉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의 예전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예전까지만 참여하고 돌아가야 했다. 즉 세례가 온전한 예배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예배는 결혼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만남이다. 예배를 통해서 이 양자는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희망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이기에 그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오가는데 성례전과 봉헌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셋째, 예배는 보편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한 정신이다. 교회 안에는, 예배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예배는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에 교회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배에 모인 사람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 예배자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하기에 예배는 삶과 선교의 차원을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장자크 폰 알멘(J. J. Von Allmen)이 제시한 예배 안에서 드러나는 네 가지의 정체성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알 수 있다.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이는 교회가 결코 결혼공동체, 보편적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선언문이나 비전선언문 혹은 표어나 목표 등에서 ‘세례공동체’라는 자기의식의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모인 세례공동체이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는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잘 표현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세례예식에서조차도 세례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례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교회가 예배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 공간에서 세례와 관계된 어떤 외적이고 가시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 죄 씻음 받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섬,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 들어감, 성령의 선물의 가시적 증표이다.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모두 이 세례에 담겨있다고 한다면, 세례예식이 있는 예배 시에만 세례 물을 담은 작은 그릇을 사용하기 보다는 예배 공간에 항상 세례반(Baptismal Font)을 놓아둠으로써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기독교 입문의 근원적 상징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I. 세례의 성경적 의미와 이미지

신약성경에는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들을 나타내는 여러 이미지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때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물의 상징적인 용례들과 연관되기도 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란 속박의 땅으로부터 자유의 땅으로의 유월사건(고전 10:1-2), 인치심(엡 4:3), 그리스도에게 빛을 받음(엡 5:14), 그리스도를 옷입음(갈 3:27),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함(벧전 3:20-22), 그리고 성(性)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의 장벽이 극복되는 새로운 인간성으로의 해방(갈 3:27-28) 등 다양한 이미지들로 설명되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세례의 다양한 이미지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는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의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sup>2)</sup>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새 예배서』<sup>3)</sup>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WCC)의 『BEM문서: 세례, 성만찬, 직제』<sup>4)</sup>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 1.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의 연합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묻는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롬 6:3).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답변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케 하는 것이다. 세례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 주는 가시적인 상징으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를 보다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허락하시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논하는 과정 중에 세례를 그 예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죽음과 장사의 개념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이미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세례에서 ‘물로 내려가는’ 행동은 장사 지냄의 중요한 행동을 나타낸다(행 8:38). 그러나 장래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 따라서 세례는 죽음과 장사와 함께 시작되어, 부활과 생명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성도의 본성은 세례를 통하여 완전히 반전된다. 더 이상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미래의 가능성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세례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차원을 가진다.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연합**

2) 제임스 화이트 지음, 김운용 옮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3) 신앙과 직제 위원회 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 예배서(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kmc, 2011).

4) 세계교회협의회 편, 이형기 옮김, 『BEM문서: 세례, 성만찬, 직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된다.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기름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중요한 인침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름 부으심과 인침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제사장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

## 2. 죄의 용서

성경이 증언하는 세례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 죄의 용서이다. 세례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세례가 가지는 가장 가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는 씻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약의 교회들에 있어서 세례는 더러운 죄들이 씻음을 받는 것이었고,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신약성경은 세례가 몸을 정한 물로 씻는 정결례이며, 모든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의인화(義認化) 시키는 행위라고 표현함으로써 세례의 윤리적 함축을 강조하고 있다(벧전 3:21, 고전 6:11).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행 22:16).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고전 6:11)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행해지는 대부분의 세례식에서 물로 씻음이 비교적 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례를 통한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침례의 방식과 같은 세례에서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의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반(盤)에 아이들을 완전히 잠기게 할 때에는 더욱 그렇게 느끼게 하였다.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완전히 아이들을 물에 잠기게 하여 세례를 베푼다.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쳐 준다.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행위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세례를 주고는 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의 신비가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례 예식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또한 지나치게 소량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기본적인 표징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으며, 정화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로운 윤리적 안내를 제시받는다.

## 3. 성령의 은사

세례는 또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낸다.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와 물세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언급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였으시며(마 3:16),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행 2:38). 특히 사도행전의 내용은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베드로



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언급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1, 38).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행 10:44-48). 하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다(행 8:17). 그 일은 에베소에서라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행 19:6). 이처럼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가 정확히 어느 때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연합시키고 있다(요 3:5, 딤후 3:5). 성령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세례받기 이전에, 세례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활동하신다. 성령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믿음을 간직하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후 1:12-22, 엡 1:13-14).

#### 4.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세례의 네 번째 주요한 이미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이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성도는 동일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가 ...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전 12:13),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게 된다. 옛 언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지체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듯, 이제 새 언약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 합일의 과정 속에서 수세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세례 받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의무도 또한 갖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수평적인 일치로 이루어진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에,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책임과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 5. 새로운 탄생

세례가 가지는 다섯 번째 주요한 이미지는 죄의 용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이다. 세례는 죄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속박에서 자유로, 율법 아래의 죽음에서 예수님 안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듭남의 시작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이다(골 2:11-12). 출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 중생(重生)의 삶은 세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디도서 3장 5절은 “중생의 씻음(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한다.

세례라는 선물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옛 아담은 벗어버림으로 우리 안에서 죽고, 장사되었으며,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었고,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인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공적인 경험이 된다. 성경적 이미지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은 아주 분명하게 여성적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탄생이라는 개념이 여성의 행동인 출산의 이미지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세례반은 교회가 지닌 가장 여성스러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어거스틴은 “세례반은 교회의 자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시대에 걸쳐 세례반은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닮은 형태로 디자인되기도 하였으며, 마치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같이 세례를 통해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 III. 세례의 제정과 초대교회의 세례교육

기독교 세례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있는 주님의 최후 지상 대명령에 근거한다.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에는 그 분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의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신약성경의 서신들과 사도행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신약성경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가장 자세히 나타나 있는 곳이 사도행전 8장 26절-40절의 단락이다. 여기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 후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세례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된, 기독교 신앙공동체에 들어오는 의식임을 나타내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역사자료는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sup>5)</sup>이다. 이 문헌은 3세기 초에 로마에서 히폴리투스(Hippolytus)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인정받아 왔으며, 『디다케(Didache)』<sup>6)</sup>와 함께 기독교 예전과 교회 규범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이 한권의 책이 그 당시 주변의 모든 기독교 신앙공동체

5) 이형우 옮김, 『히폴리투스 사도전승』 (왜관: 분도출판사, 1992).

6) 정양모 옮김,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왜관: 분도출판사, 1993).

들의 세례를 대변한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른 시기의 기독교 세례의 모습을 상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도전승』은 동·서방 교회 모두에 큰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등장하는 각종 예전 문헌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각 교단의 예식서 발간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그 영향이 남아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문헌이다.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의 ‘세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본문 단락(제15장부터 제21장까지)에 보면<sup>7)</sup> 당시 세례가 예비자의 등록에서부터 세례예식까지의 기독교 입문(Christian Initiation)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세례예비자(catechumen) 등록과 교리교육의 단계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예비자로서 등록시키고 일반적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교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이나 생활 상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했다. 왜 세례예비자로 등록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했을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문제를 단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과 연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생계수단까지도 바꿨던 모습은 비단 고대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한국감리교회의 세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게 했을까? 오늘날 세례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한 예비자들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교리교육 기간을 가졌는데, 예비자의 생활태도에 따라 이 기간이 가감될 수 있었다.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는 세례후보자(candidate) 선발과 세례 준비이다. 3년간의 예비자 교육이 끝날 즈음에, 예비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또 한 번 받게 된다. 세례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는 교육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있어서 신앙적인 발전이 있었는지가 중점적인 대상이다. ‘당신이 고아와 과부를 찾아갔었습니까?’ ‘당신이 병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어떤 종류의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었다. 단순히 예비자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외우는지가 아니라, 그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고 샘솟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사는가를 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또 한 번의 심사를 거쳐 세례후보자로 선택된 이들은 세례예식이 있는 주일까지 적어도 한 주간 이상 보다 집중적인 세례준비 기간을 보냈다.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간의 목요일에 목욕을 하고, 금요일에는 단식을 하고(세례 받는 자와 세례예식을 집례할 자 모두, 가능하면 다른 이들도), 토요일 오후에 함께 모여 구마식(악한 영들이 떠나도록 하는 예식)을 행한 후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부

7) 『사도전승』은 머리말과 맺는말을 포함해서 모두 총 4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머리말(제 1장)

본 문(제 2장 - 제14장): 교회의 인적 구성(감독자, 장로, 봉사자 등)

(제15장 - 제21장): 예비자의 등록부터 세례예식까지의 기독교 입문 과정

(제22장 - 제42장): 신자생활에 필요한 제반 규범들

맺는말(제43장)

활주일 새벽에 행해지는 세례예식에 참여하기까지 모두가 철야기도에 들어갔었다.

#### IV. 세례교육의 활용을 위한 제언

터툴리안(Tertullian, c. 160-225 A.D.)은 『변증록(Apology)』에서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Christians are made, not born!)” 오늘날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한 세례예식이 더 이상 무미건조한 통과의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기독교 입문(Christian Initiation)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감리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계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한번의 ‘예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성인을 위한 기독교 입문이 더 이상 ‘학습-세례-입교’의 별도 예식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실상 하루에 행해지는 하나의 ‘세례입교’의 예식을 마침과 동시에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 입문은 감리교인들로 하여금 세례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과거의 기억 속에만 가두어 버리게 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과 예배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지나가버린 추억 속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적, 종말론적 삶의 시작이며 근거이다.

세례후보자를 선정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그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 충실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통과의례로 행해지는 세례예식은 더 이상 오늘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일생에 단 한번 뿐인 세례예식이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영향력과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세례예식을 통해서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례예식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세례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의미 있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세례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교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공하고 있는 세례교육을 위한 교재로는 『감리교인을 위한 세례문답 해설서(개정판)』<sup>8)</sup>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주된 교육 방식이었던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방식에 따른 문답서이기에 감리교인들로 하여금 세례교육을 단지 이론적인 교리이해로 축소시킬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이것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기에 사실상 현재 감리교회는 아동세례와 청소년세례를 위한 교육교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세례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현대의 교육 방식에 맞는 또한 연령대에 맞추어진 새로운 세례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오늘의 한국감리교회에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다.

8)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편, 『감리교인을 위한 세례문답해설서(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둘째, 세례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책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에서는 한 해에 세례를 받을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세례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례교육을 몇 교회가 함께 모여 진행한다든지 또는 그 교회가 속한 지방에서 연합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진행되는 지방연합 사경회나 지방연합 여름성경학교와 같이, 한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연합세례학교'나 '연합세례캠프'를 마련하여 그 해에 각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후보자들을 함께 모아서 연령대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셋째, 청년을 포함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과거에 별도로 행해졌던 '입교'를 위한 교육이 지금의 세례교육 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오늘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세례입교'를 통해서 원입인에서 입교인의 반열에 들게 한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세례교육 이후에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또한 감리교인으로서 앞으로 성화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신앙교육과 생활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짧은 의식으로 축소된 세례가 아니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세례의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세례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세례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례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세례후보자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세례교육을 돕고 세례후보자들이 세례받기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후견인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세례교육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지 신앙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신앙공동체의 차원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탄생하는 것을 함께 준비하고 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세례교육 기간 중에 있는 세례후보자들을 세례예식이 있기 몇 주일 전 예배 시에 온 회중들에게 미리 소개하고 그들이 세례 받을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세례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이미 세례 받은 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세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패널1. “세례의 이해와 세례교육의 활용”에 대하여**

주학선 목사 | 동수교회

---

## 【새 예배서의 세례예문 적용의 실제】

나형석 교수 | 협성대학교

\*유아세례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예배서, 2011년 개정판 pp 80-85 참조)

모 임

말 씀

설교 후 응답시간에 세례를 베푼다.

세 례

집례: 담임목사

**세례받을 유아 호명**

교 회: 그 누가 문을 두드려 (365 어린이 찬송가 199장. 교창)

집례자:

\*\*\* 주께서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러분을 부르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아멘 (세례받을 유아를 데리고 앞으로 나온다. 본문에서 교회란 유아, 보호자, 그리고 참여한 교우들 즉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

## 세례식사

집례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세례받는 유아들, 부모, 보호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 기도

집례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기위해 나온 유아들을 받아주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들로 구하는 것 얻게 하시고 찾는 것 발견하게 하시며 두드릴 때 그 문 열리게 하옵소서. 이 유아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 회: 아멘.

## 악의 거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서약 / 집례자와 보호자

집례자:

세례 받게 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집례자: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집례자: 여러분은 모든 죄의 욕망을 버렸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집례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집례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집례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집례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집례자:

보호자들이여, 여러분은 이 유아들이 성장하는 대로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집례자: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유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집례자:

여러분은 이 유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입교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책임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교 회: 예, 그리하겠습니다.

### 성경봉독 / 집례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13-16)

### 세례물에 대한 성별의 기도 / 집례자

(모든 회중이 볼 수 있도록 세례대에 물을 부어 넣은 후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태초에 성령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나이다.

노아의 때에 대홍수로 옛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셨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의 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물과 성령을 통해 이 세계와 저희를 위해 행하신 당신의 모든 구원사역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제 이 물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물들로 능히 태초의 물, 노아의 대홍수, 홍해의 물, 그리스도의 옆구리 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곳에 몸을 담근 모든 자들로  
능히 아버지 당신의 이미지를 닮은 빛난 자들로 다시 창조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대홍수로 씻으사 진홍빛 같았던 저들의 죄 양털처럼 희고 정하게 하옵소서.  
옛 사람을 이 물에 빠뜨리시고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물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 당신의 거룩한 몸의 지체, 교회로 하여금 사랑의 거룩한 길 걸어 결국 당신의 나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영광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루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 세례

(보호자들은 세례대 뒤에서 회중을 마주보며 서 있다. 고백과 함께 유아의 머리에 세 번 물을 붓거나 뿌린다)

교 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365 어린이찬송가 118장)  
(찬송 후 세례 혹은 교회의 찬송 중에 세례 혹은 반주 중에 세례)

A.

집례자: \*\*\* 내가 성부와 (한번) 성자와 (두번) 성령의 이름으로 (세번) 세례를 주노라.

교 회: 아멘

혹은

B.

집례자: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 회: 아멘 (한번)

집례자: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며 하늘에 오르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독생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 회: 아멘 (두번)

집례자:

당신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과 교제하게 하실 성령을 믿습니까?

교 회: 아멘 (세번)

### 안수 / 집례자

(물로 세례를 베푼 후 집례자는 세례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혹은 십자가 형태로 도유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다)

집례자: 성령께서 \*\*\* 안에 임하사, 그분의 내적 사역으로 당신이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 회: 우리 지금 성령님을 (365 어린이 찬송가 106장)

### 주님의 기도

집례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여러분이여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올립시다.

교 회: 주기도문 (노래)

### 기도/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당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아들을 은총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들을 더욱 보호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들 안에 거하게 하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의 부모와 온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유아들이 항상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 중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회중의 세례갱신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물을 뿌려 세례갱신을 한다)

### 위탁 / 집례자

집례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유아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고합니다. 신앙 안에서 이 유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겠습니까?

교 회: 저희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혹은 아멘)

### 공포 / 집례자

이 유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 교회의 세례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 환영

(전 교회가 일어나 환영의 노래를 부른다)

보호자: 감사해요 (365 어린이찬송가 55장)

교 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365 어린이찬송가 139장)

(혹은 57장. 너는 담장너머로. 60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239장 주의 사랑으로 140장. 아주 먼 옛날 등)

## 성 찬

초대사

성찬상 준비

감사기도

분급

성찬 후 감사기도

## 파 송

## 패널2. “새 예배서의 세례예문 적용의 실제”에 대하여

이천진 목사 | 공정교회

---

# 【세례의 새로운 적용으로써의 세례캠프 제시】

박혜신 목사 | 만나교회

---

## 1. 세례캠프란?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세례캠프는 1박2일의 시간을 통하여 단순한 의식과 과정보다로서의 세례가 아닌 자신의 삶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세례의 참 뜻과 의미를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례캠프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약속을 확증해주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 2. 진행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선착순 50명)
- 자격 : 본인의 신앙고백과 부모의 동의가 있는 어린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
- 일시 : 1) 오리엔테이션 4/25(토)  
(어린이 부모 함께 참석-세례 문답시 필요한 가정교육, 큐티집 및 문답집)  
2) 세례캠프 5/4(월)-5/5(화)  
2일차 부모축하 참석(축하 편지와 선물/축복기도)  
3) 세례공포 5/10(주일)
- 장소 : 청평채플(세례캠프), 홍천 강산의 향기(2013년), 만나교회 2층 시온성전(세례 공포)

### 3. 프로그램

\* 1일차

시간	프로그램	내 용
4:00~4:30	교회로	- 참석인원 현황(어린이/교사) - 조 편성표(학년별) - 차량 탑승
4:30~6:00	이동	- 청평채플
6:00~7:20	도착 및 저녁식사	- 환영 - 저녁식사
7:20~8:00	세례교육	
8:00~9:00	세례 문답	- 6개조 별로 1:1 문답
9:00~10:30	Born Again1	- 회개문 쓰기 - 누구 때문에 - 십자가 - 어둔 밤을 지나 - 예수님을 만나요
10:30~10:50	휴식 / 세면	
10:50~11:20	Born Again2	- 세족식 - 침묵선언
11:20~	취침	- 조별

\* 2일차(세례식)

시간	프로그램	내 용
7:30~8:00	기상 및 경건의 시간	- 침묵해제 - 경건회
8:00~9:00	세례식 준비	- 샤워 - 머리감기 및 빗기 - 흰색 티셔츠 입기 - 세례식 리허설 - 도착한 부모님 준비시키기
9:00~10:30	세례식 성만찬	- 세례식(화관) - 성찬식 - 축복기도
10:30~12:00	축하 및 만찬	- 단체사진 - 가족들과 축하 - 만찬
12:00~	집으로	- 교회차량 - 자가차량

\* 2일차(침례 및 세례갱신 2013)

시간	프로그램	내 용
7:30-8:00	기상 및 경건의 시간	- 침묵해제 - 경건회
8:00-9:00	아침식사	
9:00-10:00	세례식 준비	- 샤워 - 머리감기 및 빗기 - 침례가운(세례아동) 및 흰색 티셔츠(갱신 아동) 입기 - 침례 및 갱신 리허설 - 도착한 부모님 준비시키기
10:00-11:30	침례식 세례갱신 성만찬	- 침례식 - 세례갱신 - 성찬식 - 축복기도
11:30-12:00	축하	- 단체사진 - 가족들과 축하
12:00~	집으로	- 교회차량 - 자가차량

\* 세레캠프 광고영상

\* 세레캠프 영상

\* 세레공포 영상

#### 4. 기념

- 세례증서
- 세례 사진
- 신앙고백서
- 부모님 축하 편지와 선물

#### 5. 디자인

1) 세레캠프 로고





## 2) 세레캠프 포스터



**Born Again 2013**  
**아동세레캠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 신청 세례아동, 세례강신 아동
- 접수 4/14(주일)~24(수), 행정실 앞 부스(1F)
- 오리엔테이션 4/27(토) ※부모, 어린이 필참  
오후1:30~오후2:30, 다니엘홀(1F)
- 세레캠프 일시 5/3(금) ~5/4(토), 1박 2일
- 세레캠프 장소 홍천 강산의 향기
- 문의 권오현 전도사(010-5053-9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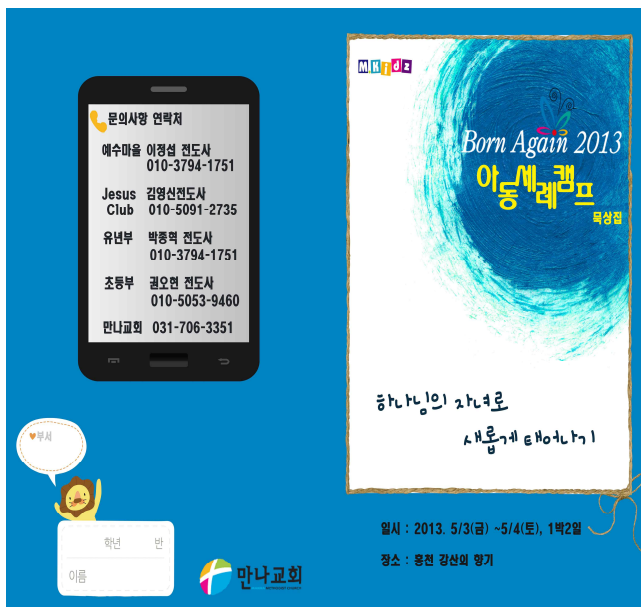
## 3) 세레캠프 티셔츠



**Born Again 2010**

## 4) 세레캠프 목상집 및 문답집(표지)

오리엔테이션, 준비물, 명단, 7일간의 목상  
(죄, 구원, 세례, 신앙생활 등), 세레문답 등



**Born Again 2013**  
**아동세레캠프**  
목상집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일시 : 2013. 5/3(금) ~5/4(토), 1박2일  
장소 : 홍천 강산의 향기

문의사항 연락처  
예수마을 이정섭 전도사 010-3794-1751  
Jesus 김영선전도사 010-5091-2735 Club  
유년부 박종혁 전도사 010-3794-1751  
초등부 권오현 전도사 010-5053-9460  
만나교회 031-706-3351

학년 반  
이름

만나교회

## 5) 세레캠프 현수막



**아동 세레 캠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Born Again 2012**

만나교회

**Born Again 2012**

### **패널3. “세례의 새로운 적용으로써의 세례캠프 제시”에 대하여**

김동준 목사 | 강서교회

---

## 【세례 갱신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숙—세례 재확증 예배를 소개함으로】

박해정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의 기독교인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칭하는 호칭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이란 세례교인을 뜻하였으며, 현재도 동일하게 기독교인은 세례를 받은 이들에 대한 호칭이다.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의 질문은 “세례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이다. 본 강연의 핵심 주제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인들이 있고 살고 있는 세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재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세례 신앙의 회복과 이를 통한 기독교인의 성숙함에 대한 숙고를 목적으로 한다.

가톨릭의 7성례와 달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가 그 명령을 따라 시행하며 지켜온” 성례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오늘의 모든 공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비의 사건이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기독교 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성찬과 달리 생의 유일회적 사건인 세례는 성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오늘의 많은 한국 교회는 유아세례와 성인세례를 행하는 빈도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면, 세례예식은 비록 일생에 한 번 있는 예식이지만, 세례의 의미는 반복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야 한다.

가톨릭의 경우 외형적인 제의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기억한다. 이들은 예배당 입구에 세례탕 혹은 세례반을 설치해 둠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세례인들이 자신의 세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성수에 손을 적셔서 자신의 머리, 앞이마, 혹은 양 뺨에 성수를 적시며 기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예식에 익숙해 있다. 개신교인들의 시선에는 이들의 행동이 형식적인 제의로 보일 수 있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단순한 외형적 예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행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그 언젠가 자신이 받았던 세례의 기억을 떠올리며 세례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종교적 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 전통에서는 세례에 대한 상징과 행위가 매우 빈약하다. 예배당 내부에 세례를 상징하는 성물은 찾아보기 힘들며, 있더라도 세례반 정도이지만, 이 또한 예배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위치해 두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세례반도 세례예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뚜껑으로 닫아두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그 용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상징 뿐 아니라, 세례가 갖는 이해의 위치가 목회적으로 그리 중한 편이 아니다. 세례 예비자 교육은 이미 형식화 되었으며, 세례 후 교육은 더욱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교회의 세례식은 공예배 시간이 아닌 특정한 시간에 따로 ‘해치우는’ 모습도 보았다.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했던 세례예식을 중심으로 한 입교(Initiation)의 과정과 오늘의 개신교에서 이루어지는 입교의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3년의 예비자 과정과 세례예식, 그리고 이어지는 세례자를 위한 교육의 깊이와 그 기간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세례에 대한 이해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는 세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그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격이 엄격하게 요구되었으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세례를 받을 권한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허입할 수 있었다. 이후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반복적으로 유월절(파스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였다. 하지만, 필자에게 있어 현대 교회의 간소화된 세례 이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가벼운 이해와 상응하며, 신앙이 인스턴트화 혹은 캐주얼화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세례에 대한 가벼운 이해는 찬송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세례예식에 사용할 찬송이 거의 없다. 세례 찬송이 거의 전무하다. 통일찬송가의 경우 세례 찬송은 전무하며, 새찬송가는 224장 “정한 물로 우리 죄를,” 225장 “실로암 샘물가에 핀,” “ 226장 “성령으로 세례 받아”가 수록돼 있다. 이 중에 225장은 통일찬송가의 어린이 영역에 있던 곡을 세례 영역으로 옮겼는데, 이는 아마도 이 찬송에 물의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226장의 경우도 어린이가 세례 받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찬송으로 성인세례 예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말 과장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필자는 오늘날 개신교회가 세례의 신학적, 성서적, 역사적 의미를 회복하는 일이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신앙의 가치라고 본다. 세례를 단순히 예배 시간에 물을 사용하여 세례 받기 위해 단으로 나온 성도의 머리에 자신들의 전통적 방식으로 물을 부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선언하는 하나의 예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케 하는 것으로(롬6:3-11),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신비의 사건이요,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으로 인도 받아서 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적 사건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여 받게 되는 사건이다.” 즉 세례는 하나의 예식에서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세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동시에 선포되고 결단되어야 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감리교 전통에서 세례를 살펴보면, 웨슬리는 세례를 비록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세례와 성화의 삶을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설교 신생(New Birth)에서 거듭남을 세례와 함께 설명하면서 세례와 함께 그 이후의 세례자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승화시켜야 됨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신생은 성화의 일부분이지 그 전체는 아닙니다. 신생

은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고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의 성화, 즉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성결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세례를 받고 세례자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례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화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

필자는 이러한 세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목회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목회예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세례 재확증 예식(Reaffirmation of the Baptism)이다. 이미 서구의 많은 교회전통들에서는 세례 재확증 예식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예식의 목적은 세례의 의미를 재확증하고, 자신이 받은 세례를 다시 기억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인으로 성숙하게 살 것을 재언약 하는 예식이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지순례의 경우 반드시 경유하는 곳이 요단강이며, 세례 요한의 세례 터와 예수님의 세례 터를 방문한다. 간혹 전해 듣는바이지만, 그 때를 회상하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곳에서 감격적으로 재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침례교단의 경우는 성인침례를 유일한 세례로 인정하기에 재세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세례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도 세례를 다시 행할 것이 아니라, 세례 재확증 예식을 거행하면 충분히 세례의 의미를 회복시킬 수 있다. 세례 갱신의 예식으로 행해지는 이 세례 재확증 예식은 여러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세례에 대한 부정적 혹은 부분적 기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유아세례를 받았기에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기에 기억은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혹은 세례를 받았으나 타인의 강요에 의하여 받았기에 여전히 세례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들에게 재세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거듭남을 경험하였던 자들이라도 다시 세례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이는 커다란 신학적 오류를 낳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적 상황에 대한 답으로 세례 갱신 예식을 가져왔다.

세례 갱신 예식을 통해서 교회는 세례 교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끝임 없는 질문들을 해왔다.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에 대한 자신의 기억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례예식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세례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성장이 멈춰 있고, 새로운 교인이 등록하지 않는 정체된 교회의 경우 교인들은 세례예식의 간접적 경험이 중단되게 된다. 위의 경우에 세례 재확증 예식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재확증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세례자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된다. 세례 갱신 예식은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급한

예식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세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를 근거로 필자는 감신대에 속한 나눔의 예전학회에서 2013년도 봄 학기 시행하였던 세례 재확증 예배를 소개하려 한다. 아래의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예배의 경험을 공유하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교회 현실에 맞게 가감하여 세례 재확증 예배를 시행한다면 오늘의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기 수여 사건의 신비적 체험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2013-1학기 나눔의 예전학회  
11th 예배시연 **세례재확증**예배


- | **일시**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 | **장소** 백주년 기념관 3층 소예배실
- | **대상** 세례재확증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아들
- | **문의** M.div5/6 황준영 (010-7272-4336)

*Remember your Baptism!*

# RENEW MEMBER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3-4)


□ Title : Renew Remember (Rememer your baptism!) / □ 주제말씀 : 롬 6:3~11  
 3.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4.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 대상 : 세례 재확증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소요 예상 시간 : 70분(1시간 10분)

NO	분 류	시 간	순 서	세 부 진 행 내 용	담 당 자	조 명	음 향	영 상
		5:10~23(13분)	기도회					
		5:24~25(1분)	각자 자리로!	안내위원을 제외한 칸토, 집례자, 영상, 조명 위치로!				
1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5:25~30(5분)	회중 입장	(안내위원, 칸토, 집례자 자리 배정 후 표시) 조용한 반주가 흘러나오는 중에 예배위원이 앞자리부터 안내한다. 컴퓨터: 포인터 / 조명(2) :	안내위원: 조주희,김현민	[채광차단] 조명 ON	BGM	
		5:30~5:33(3분)	intro 영상			off		on
		34~35(1분)	예배로의 부름	(동영상이 끝난 후, 인도자는 손짓으로 일어나는 표시한 후 멘트)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인교	On 40%	잔잔한 반주	
		36~39(3분:)	※ 찬양	 <p>찬송가254. 내주의보혈은</p> <p>(찬양이 끝난 후 정인교 오른쪽으로 퇴장 ⇨ 백수아 왼쪽으로 입장)</p>	다같이	* 칸토 : (최요섭, 오영광, 김다혜, 김민영)  ※ 마이크 5개	40%	
		40~43(3분)	※ 죄의 고백	인도자 : 이제 다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b>회 중 : (침묵으로 기도한다.)</b> (반주가 끝날 무렵 백수아 왼쪽으로 퇴장, 박해정 교수 오른쪽으로 입장)	백수아/ 침묵으로 다같이	40%	반주	




5: 43~44(1분)	※ 용서의 말씀	<p>교수님 :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p> <p>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p> <p>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개역개정/로마서 6:10-11)</p> <p>(박해정 교수 오른쪽으로 퇴장, 김아랑 왼쪽으로 입장)</p>	박해정 교수	40%	반주out	
5:44~47(3분)	※ 공동기도문	<p>인도자 :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p> <p>다같이 : 언제나 영원하시고 또 항상 새로우신 주님 / 갈급한 영으로 목이 말라 주님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나약하고 메마른 우리가 /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옵니다. /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 하나님의 자기 주님이신 세례를 통해 /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 그러나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며, / 얼마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 이 시간 함께 돌아봅니다. /</p> <p>매일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식상하게 응답했습니다. /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 매일 새로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 결국 메말라 허덕이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p> <p>용서의 하나님, /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 그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소서. /</p> <p>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 메마른 우리 영에 / 주님의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인도해주소서. /</p> <p>세례재확증을 통해 /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 생명수이신 주님을 /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는 /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일하시옵소서. / 갈급한 우리에게 /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	김아랑	40%	반주 제일 약하게	
5:47~49(2분)	※ 고백찬양	<p>찬.446. 주 음성 외에는 / (후렴부 “기쁘고 기쁘도다” 후 4절만 찬양한다.)</p> <p>나 주 께 왔 사 오 니 복 주 움 소 서 아 멘</p> <p>(김아랑 오른쪽으로 퇴장, 성경봉독자 왼쪽으로 입장)/( 회중은 자리에 앉도록 표시한다.)</p>	김아랑/ 칸토4			

2	말씀으로 나아감	5: 49~50(1분)	성경봉독	<p>인도자 :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13~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p> <p>13.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음소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p> <p>인도자 : 오늘 설교는 이천 현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행신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p>	박성빈	80%		
		5:50~6:15(15분)	말씀선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마16:13~24)	박행신목사	80%		
	세례 재확증 예식	6:16~17(1분)	예식사	<p>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p> <p>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례인 세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며,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p> <p>물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세례의 언약을 재확증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p> <p>이제, 세례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p>	집례자	40%	앞에 조영집중 후 각 세례반에 집중되는 조명	은은한 반주
		6:18~20(2분)	죄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	<p><b>집례자:</b>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례언약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였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시고,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재확증하도록 합니다.</p> <p>집례자: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침묵-</p> <p>집례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욕망들을 버리겠습니까? -침묵-</p> <p>집례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침묵-</p> <p>집례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침묵-</p> <p>집례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침묵-</p> <p>집례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침묵-</p>			in	

		6:20~21분(1분)	신앙고백	<p>집례자: 이제 우리 다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p> <p>집례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p> <p>회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p> <p>집례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p> <p>회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p> <p>집례자: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p> <p>회중: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p>	집례자/ 다같이	in	
		6:21~24(3분)	물에 대한 감사 / 성결의 기도	<p>찬양이 시작되면 스텝 2명은 양쪽 세례반에 덮여있는 천을 각각 거두고 옆에 선다. (∴안내 위원)</p>  <p>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 내몸에부어지니 생명이 고이네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피 내영에부어지니 주님이 보이네</p> <p>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내귀에 들려지니 나 주님의 자녀라 거룩한 주 손길 내 영혼 덮 내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 감사 사랑</p> <p>땅에서 태어난 이 몸이 하늘의 영생을 만 나니</p> <p>주님과 맺은 영생의 언약 영원한 주 사랑 감사 하리</p> <p>집례자 :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식을 행하도록 저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 물 속에서 구원하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 구원하였으며,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자들을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 받게 하시고,</p>	집례자	40%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물 찬양시작

				<p>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재확증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p>				
		6:25~	재확증 의식	<p><b>집례자:</b>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세례를 재확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스스로 성결된 물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고,  세례에 받았던 그 물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머리에 바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 자유롭게 ) 각 지점 세례반에서 의식을 행한다.  (재확증 후 '기억하소서' 찬양</p>	다같이	40%		

NO	분 류	시 간	순 서	세 부 진 행 내 용	담 당 자	조 명	음 향	영 상
3	감사와 응답	성찬		<p>(조명이 100%) 기억하소서 찬양을 부르며 시작한다. (여러번 반복)</p> <p><b>기억하소서</b> <b>Remember Me</b></p>  <p>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Re - mem - ber me, re - mem - ber me.            주여 기억하소서.            O Lord, re - mem - ber me.         </p> <p>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b>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b>            집례자: 마음을 드높여  <b>회중: 하나님께 올립니다.</b>            집례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b>회중: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b> </p>	집례자	조명 100		5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b>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b> 집례자: 마음을 드높여 <b>회중: 하나님께 올립니다.</b> 집례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b>회중: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b>	집례자	100%		
			초청의 말씀	“자신의 세례를 갱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 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집례자	100%		
			평화의 인사	집례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b>회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b> 집례자: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b>회중: (전후좌우의 사람들과 인사하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b>	집례자/회중	100%		
			성찬 기도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화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례자	100%		
			성찬 제정사	<b>(회중들은 집례자를 바라본다)</b>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두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집례자	100%		
			성령임재의 기도	<b>(회중은 눈을 감고 기도한다)</b>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례자	100%		
			주님의 기도	집례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b>회중 : 주기도문</b>	집례자	100%		
			분병례	(집례자는 떡을 두 손으로 들고 떼면서) :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집례자	100%		

				<p>(떡을 내려놓는다)</p> <p>(집례자는 잔을 두 손으로 든 후) :</p> <p>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p> <p><b>분급/ 집례자 와 보좌위원들</b></p> <p>(먼저 집례자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거나, 혹은 떡을 떼어 포도주에 담갔다가 먹는다.</p> <p>그리고 보좌위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분급한 후, 이어서 회중에게 분급한다. 집례자는 떡을 주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회중은 목례를 하면서 “아멘.”하며 떡을 받는다. 이때에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십자가형을 만들어 떡을 받은 후, 오른손으로 떡을 집어 포도주에 담갔다가 먹거나, 또는 떡과 함께 포도주 잔을 받은 후 먹고 마신다. 자신의 분급이 마친 후 회중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한다.)</p> <p>(분급동선) / 안내위원이 가운데서 통제한다.</p> <p>1) 가운데로 나와서 떡을 받고 왼쪽 혹은 오른쪽 양 옆으로 들어간다.</p> <p>2) 앞에 뒤를 본 기점으로 오른쪽 앞 ⇨ 오른쪽 뒤 ⇨ 왼쪽 앞 ⇨ 왼쪽 뒤</p> <p>※ 각 블록 안내위원이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안내함.</p>				
			※ 성찬 후 감사기도	<p>(다같이 일어서서)</p> <p>집례자: 이제 다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p> <p>-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에게 세례의 재확증 예식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재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여, 구원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다같이			
4	세상으로 나아감		※파송찬양	내 삶의 꽃 예수 그리스도(용휘작곡,아랑작사)	다같이			
			※파송의 말씀	집례자 :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회중 :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례자			
			※축 도		박행신 목사			
			※후 주	내 삶의 꽃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말씀				1. 은혜받는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마친 후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2. 특별히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 박행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예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싸이클럽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영			

**패 널 4 . “ 세례 갱신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숙-세례 재확증 예배를  
소개함으로 ” 에 대하여**

이은경 박사 | 대신교회

---

## 【세례 찬송 악보】

보 컬: 김미현  
해 금: 천재상  
피아노: 김서영  
피 리: 박영주

###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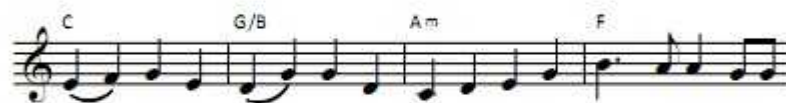
한현조 작사  
오세은 작곡



날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 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 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게 세례 베푸사  
주님앞에 엎드려 고백 - 속인 머리위에



거짓 다툼 미움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참사  
하 - 늘 의지 - 해와 겸손을 담아 주사 주의



함으로 만 빛 나게 살게 해주 세요  
자녀답게 멋지게 살게 해주 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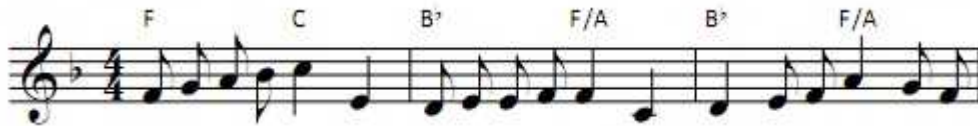
이런이세례찬송



#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한은실 작사  
한송희 작곡

♩ =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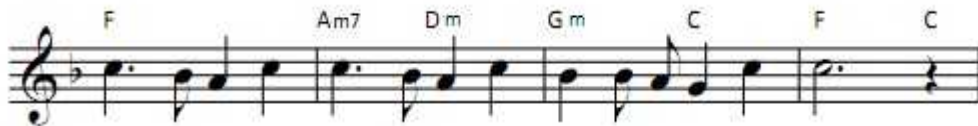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 복 하나님의 선 물 너 무나 소 중한



너 예수님의 따 스한 사 랑속에 오늘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 복-합 니 다



사 랑해 요 축 복해 요 하나님의 선 물



사 랑해 요 축 복해 요 소 중-한 ○ ○ ○

# 이 아이에게 복 내리소서

## Segne dieses Kind

글: 로타 제네티 (Lothar Zenetti 1971)  
곡: 미하엘 쉬츠 (Michael Schuetz 1993)

1. 주 님 의 은 총 이 아 일 지 켜 주 사  
2. 주 님 의 은 총 이 아 일 지 켜 주 사  
3. 주 님 의 은 총 이 아 일 지 켜 주 사

자 기 만 의 눈 떠 보 게 하 소 서 엄 마  
자 기 만 의 귀 로 듣 게 하 소 서 소 중  
자 기 만 의 길 을 걷 게 하 소 서 세 상

의 고 운 열 굴 꽃 들 의 밝 은 빛 눈 덮  
한 그 의 이 름 지 헤 의 말 썸 을 사 랑  
의 모 든 길 과 고 단 한 언 터 길 평 화

인 높 은 산 과 지 - 약 속 의 땅  
의 속 삭 임 과 진 - 리 속 의 말 썸  
의 길 을 지 나 지 - 약 속 의 땅

4. 주 님 의 은 총 이 아 일 지 켜 주 사

온 맘 으 로 사 랑 하 게 하 소 서

### ■ 원제 Segne dieses Kind / 번역자 : 손성현

수록된 찬송가는 Evangelisches Gesangbuch(Ausgabe fuer die Evangelische Landeskirche in Wuerttemberg) 581 장 (1058-59 페이지) 1절, 2절, 5절, 6절을 번역한 것입니다.

# 새로운 생명 부어주시니

어린이세레

작사 박지은  
작곡 최수민

G A/C# D/F# G D/F#

하나님 따스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시니

5 Em A/C# G/D D7 G G/B

너는 내 귀한 자녀라 말씀하셨죠 예수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자라갈래요

9 C G/B A/C# C A/C# D7

님 흘린 피 귀한 피 내몸에 강같이 흐르고 날 새

©

13 G G/B C Am G/D D7 <sup>1</sup>G

13 롭 게 하 신 그 사 랑 을 기 뻔 하 며 찬 양 해

17 <sup>1</sup>G G G/B C Am G/D D7 G

17 1해 날 새 롭 게 하 신 그 사 랑 을 기 뻔 하 며 찬 양 해

**2013년 젊은이(청년·청소년) 예배포럼 자료집**

펴낸날 : 2013년 9월 30일

엮은이 : 정현범, 임기선 02)399-4371, 4367

홈페이지: <http://www.kmcedu.or.kr>

이메일 : [kmcedu@chol.com](mailto:kmcedu@chol.com)